

2024 Vol. 26

ISSUE & FOCUS

전국연구개발지원단

Regional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Contents

04	17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뉴스페이스 시대와 경남의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02 지역과학기술 COLUMN 대구지역 산업클러스터 환경과, 기업의 내부역량이 지역 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22	46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04 R&D 성공사례 경기도 대표 R&D 지원사업,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우수사례
51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01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뉴스페이스 시대와 경남의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남연구개발지원단

지역과학기술 이슈페이퍼(ISSUE PAPER)

뉴스페이스 시대와 경남의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 경남연구개발지원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진입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성장

- 우주개발은 1950년대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우주프로그램들이 민간의 주도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림
 - 1957년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미국은 NASA를 설립하고 아폴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1969년 최초의 유인 달착륙 성과를 이루는 등 군사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우주개발 경쟁 구도가 형성됨
 - 1980년대 이후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우주개발 예산이 삭감되고 관련 프로그램이 축소된 이후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상업화를 이끄는 우주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 2000년대 이후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이 우주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이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주경쟁이 심화됨
- 2023년 미국위성산업협회(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SIA)는 2022년 세계 우주산업이 3,840억 달러 규모임을 발표하였고 유로컨설팅(Euroconsult)는 2031년 우주산업이 1조 2,4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주산업의 70%이상은 위성산업이 차지하며 발사체 및 위성체 제조분야보다 지상장비 및 위성서비스 분야의 시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최근 10년간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주분야에 대한 투자금액도 2022년 기준 62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은 2022년도 기준 120억 달러를 우주사업에 투자하여 미국의 뒤를 이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5개 국가가 전세계 우주사업의 84%를 차지함

■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경남의 우주산업 성장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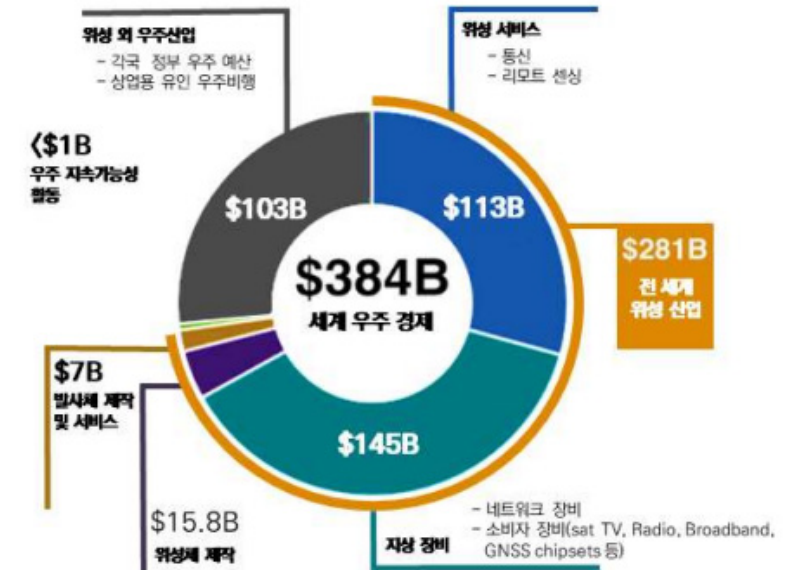
- 정부는 국가의 우주개발 중장기 정책수립과 사업운영의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여 2024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속으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KASA)을 설립함
 -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등의 3가지 성과목표를 수립
 -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의 5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2대 실천 전략으로 설정
- 경남은 정부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의 발사체 특화지구와 함께 지정됨
 - 2024년 7월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산을 3천 8백억원의 규모로 확정하고 2030년까지 진주시와 사천시 일대에 우주환경 시험시설 및 위성개발 혁신센터를 건립할 예정
 - 위성클러스터의 두 핵심기관은 모두 경남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에 소재한 국가항공 산업단지에 조성되며 우주항공청과 교육, 연구기관, 기업 유치를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우주항공의 컨트롤타워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지역으로 선정된 경남은 기존 주력산업인 항공과 방위산업으로 우주분야의 진출 및 확장이 필요한 시기
 - 경남은 기존의 전통 기계산업 및 금속 가공 산업 등으로 지난 30여년간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노후 설비,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우주항공청 개청, 위성 특화지구 핵심 시설의 건립 등으로 우주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임
- 경남의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 및 연계 기관 등의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의 우주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경남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참여 분야 및 규모 등의 현황과 관련 기관 등의 우주산업 역량을 점검하여 지역의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함
 - 우주항공청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구축 및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의 우주분야 활성화, 산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지역 협의체 설립, 우주기술 전문인력 육성, 국제교류의 중심지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함

2. 주요 우주산업정책 및 기술 동향

■ 글로벌 우주강국의 정책 및 기술동향

- 미국 위성산업협회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에서 위성과 관련된 분야의 비중은 약 73%를 차지하며 시장의 규모는 2,810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함
 - 이 중 위성체 및 발사체 제작은 8%(22억 8천만 달러), 지상장비 52%(1,450억 달러), 위성활용 서비스는 40%(1,130억 달러)로 지상장비와 위성활용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함
- 미국은 글로벌 우주경제의 선두주자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우주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NASA의 예산 규모는 260억 달러로 우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
 - 글로벌 우주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6%로 최근 10년간 미국의 평균 시장 점유율은 38%이며 2022년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620억 달러의 규모로 전 세계 우주 예산의 60%를 차지함
 - 최근에는 우주 탐사, 기후 변화 대응, 국방 우주와 관련하여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자국의 패권 유지와 우주 자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방 우주에 대한 투자와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2022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분야별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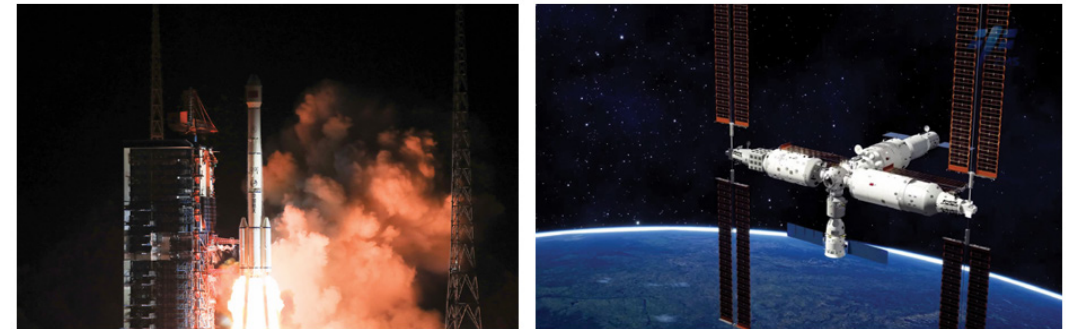
- 미국의 위성체 제작은 보잉(Boeing),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등의 기업이, 발사체 기술은 스페이스X, 로켓랩(ROCKET LAB) 등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 보잉은 디지털 방식 탑재체 위성의 개발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록히드 마틴은 10kg부터 2,200kg급까지의 다양한 위성 개발을 진행중이며 유인달착륙선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발사체 분야는 메탄 엔진개발과 3D 프린팅 기술 활용, 재사용 발사체 개발 등이 중점 기술 이슈이며 스페이스X는 스타쉽 사업을 통해 초고중량 재사용 발사체, 팔콘 시리즈 발사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Starlink, 초대형 군집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2024년 기준 6,000여개의 위성을 발사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수 만대 이상의 규모로 확장할 계획임
-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의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개발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수요자가 되어 이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기존의 올드 스페이스 시장 형태를 변화시키는 혁신을 가져옴

	팔콘1	팔콘9				팔콘헤비	스타십
							
연도	'06~	'10~	'13~	'15~		'18~	현재 시험발사중
상태	단종	단종	단종(1회용)	상용(재사용)		상용	
투입 성능	LEO 180kg	LEO(저궤도) 22,800kg /GTO(정지천이궤도) 8,300kg				LEO 54,400kg /GTO 22,200kg	
							LEO 150,000kg 이상 (120명까지 탑승)

[그림 2] 미국 스페이스X사의 발사체 개발 현황

- 중국은 5년마다 우주정책을 검토, 기획하고 있으며 최근 우주개발정책으로 발표된 2022년 우주백서에서 우주 인프라의 개선, 위성항법시스템 완성과 운영, 고해상도 지구관측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를 기획·수행하고 있음
-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적 부상을 바탕으로 우주기반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우주정거장 텐궁, 유인 우주선 선저우, 달 탐사 계획인 창어 등을 추진하며 우주산업 확대와 함께 우주개발을 진행중

- 위성 통신망 구축을 위한 천변성좌 프로젝트(별칭: G60 스타링크)로 미국의 스페이스X를 추격하고 우주탐사의 경우 2028년 원자력 에너지 기반의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등 미국의 우주자원 선점을 저지하고자 하는 중국의 우주 굴기를 보여줌
-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 CAST)의 자회사이자 국립연구소인 우주기술연구원(China Academy of Space Technology, CAST)에서통신 및 광학 장비, 지상장비, 위성 및 탑재체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며 유인우주 인프라 개발, 정지궤도 위성기술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 정지궤도 위성 분야에서 순수 전력 기반 플랫폼, 발사중량 8톤의 차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Lips-300 이온 엔진을 자체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기술 개발과 함께 국방 우주력 증강 정책을 추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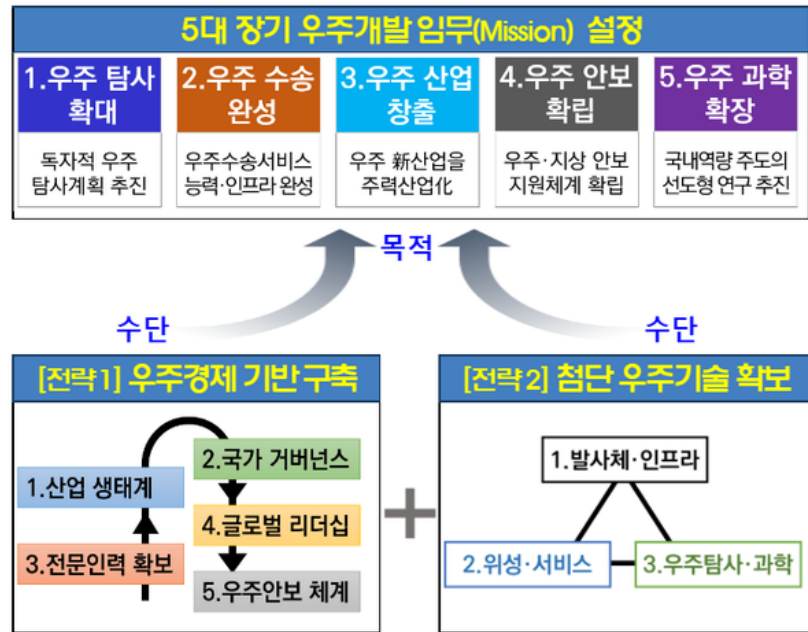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창정3호 발사(좌) 및 텐궁 우주정거장(우)

- 러시아는 로스코스모스(Роскосмос) 연방우주청이 대통령이 주도하여 수립하는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해당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 「러시아의 우주산업 발전 동향과 국제협력 전망」(세르게이 발렌테이 외, 2021)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주정책은 「우주활동에 관한 연방법」 제5663-1호법에 의해 주요 권한 및 담당 기관과 정책 방향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가 우주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우주과학 연구, 우주현상 관찰, 우주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통신, 방송을 위한 우주기기의 활용, 지구 모니터링 및 기상학, 위성항법 및 측지시스템, 유인우주비행 등의 민간우주분야를 제시함
- 2011년 글로벌 로켓-우주기기 생산 비중이 10.7%였으며 2020년 16%까지 증가시키려고 했으나 미국과 중국 등과의 경쟁으로 실패함
- 그러나 유인우주기술 및 다용도 우주장치의 개발·생산·발사·가동과 우주기지 개발 기술은 전통적으로도 강세였으며 향후 유인비행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임

- 러시아가 미국,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여 건설한 국제 우주정거장은 20년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주정거장의 궤도 유지와 기동을 위한 기술은 러시아가 전담하고 있음
- 로스코스모스의 산하시설로 RKA 미션 컨트롤 센터가 모스크바에 위치하여 국제 우주정거장의 임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그 외에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과 스타시티의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 등의 시설을 보유함

■ 국내 우주개발정책 및 중점우주기술개발 추진 동향

- 2023년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2045년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비전을 앞세워 장기 정책과제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에서 안보, 산업, 외교 등의 분야까지 확장한 종합정책을 수립함



[그림 5]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로드맵

- 우주탐사 확대, 우주수송 완성, 우주산업 창출, 우주안보 확립, 우주과학 확장의 5가지 임무를 설정하고 우주경제 기반 구축 및 첨단 우주기술 확보의 2대 실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함
- 제4차 기본계획부터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 정책으로 전환하며 중장기 우주개발 임무 중심, 우주탐사·과학 영역까지 확장, 민간참여 우주산업으로의 확대 등 정책 방향이 변화됨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2대 실천전략중 하나인 첨단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우주 추진 시스템 개발, 위성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우주탐사 역량 강화 및 우주과학 연구 확대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방향을 설정함

- 2028년 이후 민간 주도 발사서비스를 시작하고 고체/액체 발사체 및 소형발사체 개발을 민간이 주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025~2027년까지 매년 반복 발사를 통해 차세대 발사체 기술을 개발, 재사용 발사체까지의 기술개발로 연계시키고자 함
- 위성산업 창출을 위한 체계종합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위성개발을 확대하면서 정부는 위성활용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초고해상도 영상레이더 및 광학 위성 개발, 군집형 초소형위성 및 관련 활용시스템 개발,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및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검증용 플랫폼 및 핵심기술, 궤도상 서비스 위성 개발 등을 중점기술로 명시함
- 우주탐사 역량과 우주과학 연구 확대를 위해 달 탐사 및 화성 탐사를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자기장 및 감마선 측정기술, 고해상도·광시야 카메라 기술, 이차전지, 연료전지, 원자력 등 달 표면 전력 생산과 저장 기술 등을 주요기술로 명시함

- 2024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분야 및 디지털 전환시대의 필수기반 기술인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함
- 우주항공분야는 발사체, 위성, 달착륙선 관련 핵심 기술과 부품 등을 자립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재사용 발사체 등의 선도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영상기술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
- 또한 차세대발사체 등 핵심 여타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2032년을 기준으로 독자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형다단연소사이클엔진, 우주관측·센싱, 달착륙·표면탐사 등의 중점기술을 설정함



[그림 6] 거대과학 및 필수기반 분야 전략로드맵 주요 임무

3. 경남 우주산업의 주요 현황

■ 전국대비 경남의 우주산업 관련 기업체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와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디렉토리북」에 따르면 전국에 소재한 기업체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총 442개로 나타남
- 우주산업의 세부분야 중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180개로 전체의 41%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위성체 제작 분야 순으로 나타남
- 5년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낸 세부분야는 발사체 제작으로 37개의 기업 수가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위성체 제작 30개,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분야가 28개로 나타남
- 우주과학연구와 우주보험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기업체 수가 10개 이하이며 우주탐사분야의 기업체 수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함

분야	2018	2019	2020	2021	2022
위성체 제작	58	58	62	67	88
발사체 제작	68	75	84	100	105
지상장비	81	80	87	95	104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	152	157	165	183	180
우주과학연구	7	6	7	9	8
우주탐사	5	4	2	3	3
우주보험	8	8	8	8	8
합계	342	359	389	428	442

[자료]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 1] 최근 5년간 전국우주산업 기업체 분야별 현황

- 「2023년 우주산업실태조사」에 수록된 총 442개 기업체 명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본사 기준 소재지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자료 기준으로 총 64개의 업체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분야(중복 허용)별로는 위성체 제작 12개(18%), 발사체 제작 31개(48%), 지상장비 18개(28%), 위성활용서비스 및 장비분야의 업체 5개(8%)가 소재하며 대부분은 발사체 제작과 지상장비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장,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등 우주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일부 외의 대다수인 약 85%이상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차지함

■ 경남의 우주산업 역량 진단

- 우주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소재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선정으로 향후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등 우주산업의 핵심인프라가 조성되며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구축될 예정



[그림 7]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감도

- 우주개발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대표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는 우주분야 기업들 외에도 기존의 주력산업인 항공과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 대다수 위치해 있어(전국대비 60%이상) 우주분야로의 진출 가능성과 역량이 높음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산업과 방위산업의 선두기업으로 국내 최초의 국산전투기KF-21과 초음속전투기인 T-50의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성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그밖에도 일부 스타트업 기업은 위성용 안테나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 스타트업, 우주환경 시험장비(궤도환경, 추력환경, 발사환경 시험장비 등)에 필요한 열진공챔버 등을 자체개발 및 제작기업 등의 우주산업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산업체 외에도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우주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중임
- 위성군, 위성체 추진·구조·제어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환경부의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항공대학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
- 지역에 소재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원자력전지의 열전발전소 및 다이아몬드 전력반도체 개발, 극저온 환경에서의 특수합금 3D 프린팅 신기술 개발 성과를 이룸



[그림 8] GTL의 안테나 시스템(좌)과 메카티엔에스의 우주용 전기추력기 시험시설(우)

4. 경남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우주항공청 중심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광역 차원의 지원

- 국가와 지역의 우주산업의 발전은 올해 최초로 설립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이 중요한 요건이며 더불어 우주산업의 클러스터 및 대내외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수임
-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 교육, 교통, 관광 등 정주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며 제도적 기반이 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임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우주산업 연계성 증진, 첨단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수요 증가, 이로 인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이어져 지역을 넘어선 국가 차원의 위상을 향상시키므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사천공항의 국제선 신설, 국제교류 행사를 위한 컨벤션 센터 및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부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지원과 협력이 요구됨



[그림 9]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사업의 세부전략 및 공간구상도

■ 지속가능한 지역 대표의 우주산업발전 협의체 설립과 운영

- 우주산업을 육성을 위해 정부와 경남도는 위성특화지구 인프라 구축, 국가항공산단 건설, 국내외 우주기업 유치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나 지역의 우주산업을 위한 대표적인 협의체의 부재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됨
- 우주산업을 육성을 위해 정부와 경남도는 위성특화지구 인프라 구축, 국가항공산단 건설, 국내외 우주기업 유치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우주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기획·추진하는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의 주체는 경남도 또는 연계기관이나 경상국립대와 KAI 등 지역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관이 담당하고 연2회 정기개회, 임기제 위원 10인 이상 위촉 등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지역 우주산업 현황 및 점검, 지역의 주력 우주기술개발 선정과 지원, 타지역 우주산업 클러스터 특화지구와의 협력, 국제 교류 행사 및 사업 발굴과 기획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 산업단지 내의 우주산업 관련 특화지구 지정과 강소기업 육성 사업 추진

- 경남도는 진주와 사천시 일대의 항공국가산단 내에 위성개발혁신센터, 우주환경시험시설, 미래우주 산업 기술시험센터를 중심으로 경남 스페이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
-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산·학·연이 집중되어 산업 시너지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우주산업 분야의 특화지구를 국가산단 내에 지정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함
 - 창원국가산단의 경우 우주개발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창원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대학기관이 자리잡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이 집적된 특화지구를 지정·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우주관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및 우주분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 우주개발 및 우주탐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우주분야 전문가 및 산업 종사자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인력 양성 사업이 필요함
- 경상국립대학교는 2006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AI트랙”을 운영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들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우주개발과 우주탐사의 중점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글로벌 우주기술 교류 기회 증대를 위한 학술행사 및 전시회 개최

- 우주산업은 독자적으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우주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국제 교류 및 협력은 반드시 필요함
- 우주산업과 더불어 우주과학 및 국방우주의 영역까지 다양한 국내외 교류 행사를 주최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02

지역과학기술 칼럼 COLUMN

대구지역 산업클러스터 환경과,
기업의 내부역량이 지역 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지역 산업클러스터 환경과, 기업의 내부역량이 지역 산업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대구연구개발지원단

1. 서론

산업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통한 투자 및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GRDP 전국대비 비중은 47.3%로 수도권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구 소멸 위험지역 105곳중 97곳이 비수도권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부산, 경남, 광주 3개 지역과 함께 가장 먼저 지역산업지원사업이 추진되었던 대구지역도 낮은 과학기술혁신 기반과 미래성장 침체,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구조의 고착화, 지역 및 청년고용율의 전국 하위 수준 및 경제활동인구 유출의 과학·산업·경제 다방면에서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방안의 도출을 위해 기술혁신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지역 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행되었다. 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연구개발역량과 기업가정신에도 영향을 받으며, 혁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요인보다 내부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즉, 산업클러스터 환경과 같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제도에 의해 기술혁신이 크게 영향을 받지만, 기업 내부적으로도 기술혁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외부요인을 산업클러스터 환경, 내부요인을 연구개발역량과 기업가 정신으로 구분하였으며, 대상 산업군은 전통, 주력, 기반, 신성장 산업군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내·외부요인에 의한 기술혁신 수준을 알아보았으며, 청 4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군 구분을 통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고, 산업군 구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지역 대표산업에 속하는 세부산업별 정의]

구분	정의	KSIC 분류(산업명기준)
전통 산업	섬유 ▪ 굵기 대비 길이가 10배 이상인 섬유소재, 중간재 및 섬유제품 생산·마케팅 관련 산업으로, 의류에서부터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산업	▪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등 32개 산업
	뿌리 (소재)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제조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산업	▪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등 17개 산업
주력 산업	자동차 ▪ 자동차 부품제조와 완성차 조립 등과 같은 원동기에 의한 육상 이동을 위해 제작된 용구를 생산하는 산업	▪ 자동차 제조업 등 19개 산업
	기계 ▪ 전통적인 기계산업에 신기술과 타 산업의 융합으로 창출된 스마트 기계 부품 및 장치 등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등 6개 산업

구분	정의	KSIC 분류(산업명기준)
기반 산업	ICT ▪ ICT 기술이 접목된 하드·소프트웨어 등의 서비스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 16개 산업
신성장 산업	의료 ▪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에 활용되는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생산과 관련된 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 16개 산업
	로봇 ▪ 외부환경 인식·상황 판단 및 자율적인 동작·작업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계인 로봇의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 6개 산업

주: 2022 대구산업통계브리프, 대구광역시(2022) 재인용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산업정책과 동시에 지역 간 발전격차 완화라는 지역정책을 결합한 산업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지원사업을 199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간 대구지역은 클러스터 정책 및 사업인 5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이후 추진된 연구개발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규제자유특구 등 산업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대구지역 클러스터 추진 현황 및 특화분야와 대표산업의 변화]

클러스터 정책/사업		추진연도	특화분야									
지역 산업 육성 사업	1단계 전략산업	'99~'03년	섬유									
	2·3단계 전략산업	'04~'12년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생물
	1·2단계 광역선도산업	'09~'14년	첨단융합소재		스마트 기기부품		IT융복합				그린 에너지	
	(新)특화산업	'13~'14년	패션 웨어	정밀 성형		생산공정 기계	지식 서비스				바이오 헬스	
	주력산업	'15~'17년					분산형 에너지	의료 기기				
		'18~계속	첨단소재부품					의료헬스 케어				
	경제협력권산업	'15~'17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지능형 자동차부품/기계							
		'18~계속		첨단 신소재	전기 자율차							
연구개발특구		'11~계속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스마트 IT	의료기기 소재			그린 에너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8~계속					지능형 맞춤 의료기기·서비스					
규제자유특구		'19~계속					스마트 웰니스		이동식 협동로봇			
대표산업			섬유	뿌리	자동차	기계	ICT	의료	로봇	기타		
			전통		주력		기반		신성장			

주: 추진기간에서 “계속”은 2022년 기준을 의미

[자료] 각 연도별·부처별 지역산업 육성 계획 등 재구성 (2023)

2. 변수의 설명

산업클러스터의 효과는 집적효과(clustering effect)를 통해 클러스터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는 것이다. 집적효과는 지리적 집중으로 인해 기술융합의 기회, 협력에 의한 학습기회, 고객과의 접촉기회 등이 높아지고, 전문인력에 대한 접근, 정보교환의 촉진, 기업 간 경쟁과 협력, 기업과 기관 간 유기적 연계 등이 활성화됨으로써 클러스터 내 기업의 혁신 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역량은 기업의 투입된 내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실증적 연구들에서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나 인력의 비중이 기술혁신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업화를 위한 혁신적 방식으로 새로운 자원의 창출을 위해 기존자원을 조합하는 활동양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기업가정신이고, 기업가정신을 대변하는 최고경영자의 혁신의지가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의 기술적 개선, 공정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 연구결과

1) 지역 대표산업(전통·주력·기반·신성장산업) 간 기술혁신과 기술혁신의 외부(산업클러스터 환경) 및 내부(연구개발역량·기업가정신)요인에 차이가 존재

- 기술혁신에 있어서 지역 대표산업 간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기반산업인 ICT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인데 반해 전통산업(섬유·뿌리)이 가장 낮은 수준
- 산업클러스터 환경 중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환경은 산업생산환경으로 전통산업이 기반·신성장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비유의적이었지만 과학기술환경에서는 기반산업이 기업지원환경에서는 신성장산업이 높은 수준
- 기술혁신의 내부요인인 연구개발역량과 기업가정신에 있어서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ICT 분야 중심의 기반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

2) 기술혁신의 근원을 산업클러스터 환경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요인 보다는 기업의 내부역량이라고 보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이 더 타당

- 산업클러스터 환경 중 산업생산환경만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기술혁신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이에 반해, 내부요인인 연구개발역량과 기업가정신은 모두 기술혁신에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

3) 기술혁신의 외부(산업클러스터 환경)와 내부(연구개발역량·기업가정신)요인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 대표산업 간 차이가 존재

- 산업클러스터 환경 중 기업지원환경의 기술혁신에 대한 영향력은 전통·주력산업과 기반·신성장산업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
- 내부요인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일부(기반·신성장) 산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

4. 시사점

- 1)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투입과 산출이라는 단순 선형적 접근이나 정적인 시스템 관점인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지역 혁신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 관점에서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 2) 전통·주력산업과 기반·신성장산업 간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클러스터 환경의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 대표산업에 대한 획일적 정책 및 지원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
 - 전통·주력산업은 특정산업과 전후방 연관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이 기술혁신을 촉진하므로 인프라 구축 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연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 기반·신성장산업은 최근에 지역의 특화분야로 지정·육성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통·주력산업에 비해 지원 관련 기반이 열악하므로 지속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하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 3)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및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
- 4)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본 연구는 산업 간 비교분석에 국한하고 있어 향후 산업 내 가치사슬(소재-부품-모듈-시스템-서비스) 간 기술혁신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도 필요

※ 상세 연구 및 데이터 분석 등의 내용은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https://www.dtis.re.kr/>)내 발간물 메뉴 2023년 이슈페이퍼 1호(대구지역 전통,주력,기반,신성장 산업별 클러스터 환경, 내부역량과 기술혁신) 참조

03 연구개발지원단 NEWS

-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 2.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 3. R&D 역량강화 및 성과 확산
-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1.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 비전 선포식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10월 10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100일을 맞아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희권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 및 도내 혁신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원자치도와 과기정통부는 「강원 과학기술혁신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 협력체계를 순차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 이후에 첨단 과학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오현환 정책기획본부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 현황 분석 및 대응전략을 발표했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웅규 연구위원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과 강원지역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주로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R&D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과 민간 주도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종합 토론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영근 미래전략부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강상규 책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이종영 단장 등 총 8명이 참여했다.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수도권으로 전문 인력 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지역주도 R&D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보도자료 <https://v.daum.net/v/20241010163207396>
<https://state.gwd.go.kr/portal/briefing/pressRelease/newpressRelease?seq=3970>

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 개최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 혁신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1월 미국 대선을 대비하여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선 결과가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인과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 정치학자 김지운 박사는 두 후보의 정책 기조를 비교 분석했다. 해리스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첨단기술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둘 것으로, 트럼프 후보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산업별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양 후보의 산업 정책이 한국과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대응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구축과 수출·조달 지역의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의 기회와 리스크를 논의하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한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핵심 원자재 내재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수출 시장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기획연구 회의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기획연구」 회의자료

(24.10.30 / 네이버 길어리추)

1 회의 개요

- (회의목적)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기획연구」 과업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 등 안건 논의
- (회의일시) 2024년 10월 30일(수) 14시
- (회의장소) 경기도청 회의실
- (참석범위)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네이버길어리추 관계자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기획 연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설립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과업 범위가 공유되었고, WEF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경기도가 구상 중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중점 분야와 지원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스마트 제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WEF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술 혁신 지원이 경기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획 연구를 추진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서 도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TP, 2024 K-우주항공정책포럼 전략위원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와 우주항공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와 지난 26일 경남 진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2024 K-우주항공정책포럼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K-우주항공정책포럼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발전과 위상 제고, 지속 가능한 우주항공 정책 발굴을 목표로 창립됐다. 지난해 3월 창립포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6회의 포럼(세미나)을 개최했으며 557명의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우주항공 분과별 전략 수립 및 분석, 기획, 정보 공유를 위한 활발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국내 우주항공 정책 발굴 및 제안 등 K-우주항공정책포럼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우주분과(13명), 항공분과(13명), AAM분과(10명)로 편제돼 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권진희 경상국립대 총장의 우주항공 생태계에서 대학의 역할, 김승조 서울대 명예교수의 미래 우주산업 제언 등 기조 발표에 이어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 우주항공 본부장이 경남 우주항공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K-우주항공정책포럼 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전략위원회 분과별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보도자료 <https://www.etnews.com/20240927000064>

2024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연구개발지원단(이하, 광주연지단)은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지역 R&D분야별 주요현안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통합기관(광주TP-광주과학기술진흥원)으로 재출발한 광주테크노파크는 과학과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해 각 영역에서의 공통이슈 도출 및 전문가 교류 등의 방안을 고민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의 미래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산분야에 대한 정책이슈 발굴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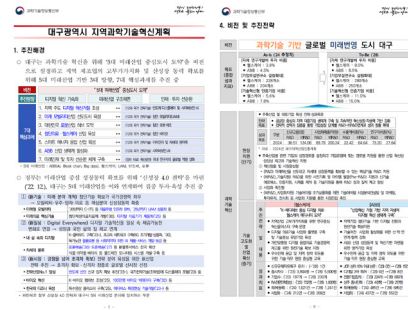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지역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산업측면(지역산업진흥계획)의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미래 신산업 추진으로써 AI+X, 첨단모빌리티, 미래첨단 국방 기술을 이슈분야로 선정하여 우리 지역 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를 구성하였다.

금번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는 기존 과학기술과 관련한 원천기술 중심의 정책 이슈들 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 신산업과의 연계 기반의 지역 정책 및 기술동향, 과학-산업 여건분석, 활용 전략, 정책제언 등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주테크노파크 연구개발지원단은 앞서 언급한 분야 별 이슈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2024년 광주 과학기술정책 이슈페이퍼”에 수록할 예정이며, 지역 내 유관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시 과학기술혁신계획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시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와 전략적인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시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하였다. 혁신계획은 대구시에서 지정한 미래육성 5대 산업(반도체, 로봇, 의료헬스, 미래모빌리티, ABB)중 의료헬스와 ABB 2개 분야를 선정하여 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더하여 첨단로봇과 미래모빌리티 분야를 유망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하여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산업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 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21일(월) 대전 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점기술분야로 추진하는 첨단바이오, 국방반도체 육성계획을 포함한 대전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심의받았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 중이고 중점기술분야, 거점연구기관을 각 2개를 선정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도출된 과제에 대한 예산확보가 추진되어진다. 대전지역의 거점연구기관으로는 첨단바이오분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국방반도체분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중심으로 정부예산을 확보와 해당 기술분야의 역량을 높힐 수 있도록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2026년 국방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신규사업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다.



세종시-세종TP, 세종미래경제포럼 개최
지역혁신 성장과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박차

세종연구개발지원단



* 세종미래경제포럼 개최 모습
(출처 : 충청뉴스(http://www.ccnnews.co.kr))

세종시(시장 최민호)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는 7일 세종 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제2회 세종미래경제포럼’을 개최 하였다. 이번 세종미래경제포럼은 ‘지역혁신 성장과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세종시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인력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주제발표를 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희정 센터장은 지역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사항으로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세종시가 지향해야할 정책 방향으로 ▲비즈니스 친화적 도시, ▲첨단테크 도시, ▲스마트 교육환경 도시, ▲개방형 인재 순환 도시를 제시했다. 서만철 전 공주대학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세종시의 인력수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시의회, 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 주체들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포럼이 세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면서, “향후 산·학·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사이트 <https://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150>
보 도 자 료 세종테크노파크 - 보도자료

부산 과학기술 기술사업화 혁신전략 세미나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9월 25일(수) 부산 시티호텔에서 ‘부산 과학기술 기술사업화 혁신전략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의 산학협력과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인 관계자들 대상으로하여, 기술사업화 혁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① 부산시 기술사업화 동향과 정책수요, ② 부산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트렌드, ③ AI 및 디지털전환(DX)을 활용한 지역 기술사업화 전략 등 주제를 중심으로 한 세션이 마련되었다.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혁신 전략 패널토론은 박훈기 부산연합기술지주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지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본 세미나는 현재 부산연구개발지원단에서 진행중인 ‘부산 기술거래 특성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기술사업화 추진동향을 진단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연구의 정책방안 도출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2612>
<https://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681823>



울산광역시 25년도 R&D사업 관련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연지단에서는 23년 울산광역시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에따라 24년 울산지역에서 신규로 발굴되는 연구개발 사업들의 기술평가위원회를 운영였다.

금번에 진행한 기술평가위원회는 25년도에 지자체에서 운영할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여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울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내·외 전문가 28명을 초빙하여 23일에는 신규사업 7개(화학분야 2개, 에너지분야 2개, AI분야 3개)사업, 24일과 25일에는 계속사업 16개(정책분야 3개, 에너지분야 3개, AI분야 3개, 조선분야 4개, 화학분야 3개)에 대한 기술평가를 진행하였고 신규 및 계속사업 총 23개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지자체에 건의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연지단은 이와같은 기술평가위원회 및 전주기 관리체계의 지속 운영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산업기술 유관기관 라운드테이블 실무협의회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지역 R&D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첨단모빌리티 분야의 신규 발굴과제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조선·해양, 방산·항공 분야에 대해서 현 정부 추진 방향과 2025년도 사업 추진 예정 분야에 대해서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전북지역 미래 산업 창출 및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의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과학기술혁신협의회 개최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기획을 위하여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관 소속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주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지역의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으로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다.

혁신계획의 중점과학기술분야로 농림수산식품, 에너지/자원 분야가 선정된 가운데, 분야별 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의 혁신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혁신기관 일반현황 및 사업 조사 계획을 설명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 혁신협의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에서는 제주에 필요한 사업/과제를 검토하고 거점연구기관 중심의 추진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2. 지역 맞춤형 R&D과제 발굴 및 사업관리

2024년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4개 분과 합동 연구회 개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강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4개분과(지역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 정책, 바이오헬스, 융복합신소재, 첨단IT융합) 합동 연구회가 지난 10월 7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바부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4개 분과 연구위원 및 강원연지단 PM 등 22명이 참석하여 '24년 과학기술 이슈 발굴 내용 공유, 이슈페이퍼 작성 관련 의견 교류, 국내외 최신 과학기술 동향 공유와 지역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논의 및 '25년 연구회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의 경우 강원연지단 황경준 팀장이 강원 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발표했으며, 강릉원주대 손석호 교수는 지역주력산업에 기반한 교육 및 청년지원정책 동향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건희 박사는 의료기기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반의 적층제조 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 이후 4개 분과별 분임토의를 진행했는데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학기술 정책 분과에서는 도심 내 공실 활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 접목 및 사례 분석을 논의했으며, 바이오헬스 분과에서는 융복합 의료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혁신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융복합신소재 분과에서는 이종 산업간 연계가 가능한 주요 기술관련 공유 플랫폼 운영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첨단IT 융합 분과에서는 강원 주축 산업내 합성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향후 각 분과별로 추가 논의를 통해 이슈 페이퍼 및 리포트 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말에 비대면으로 '24년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성과 교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점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연구회 운영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 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2026년 국방반도체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회 구성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회에서는 정부/지자체 정책 부합할 수 있는 “국방용 질화갈륨 (GaN) 기술개발 및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에서 추진해야할 당위성, 타 사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연구회를 운영을 통해 정책적 부합성, 사업추진 당위성, 기술개발 차별화 보완할 수 있도록, 대전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점신규사업 제안서의 질적 우수성을 높이고, 국방반도체 분야의 2026년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재난특화중소기업 연구개발과제 발굴 지원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R&D 기획 경쟁력을 강화하는 ‘2024년 울산 재난안전 산업 육성지원사업 R&D 기획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알렸다.

이 사업은 울산지역 재난안전산업 특수 분류에 해당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기업당 4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료, 원고료, 기술정보 수집비, 학술지 구독료 등 기획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R&D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신규 특허 출원,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울산의 재난안전산업이 성장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꾀할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02009121440723>

지역 R&D과제 발굴을 위한 인천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은 인천 지역의 산학연 주체들이 참여하는 인천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다. 연구회는 지역 내 과학기술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전문가 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였다.

연구회는 빅데이터, 첨단모빌리티, 바이오매스, 첨단소재 4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과에는 산학연 관계 전문가 5인 내외가 참여하였다. 각 분과는 최소 4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였다. 연구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은 선정된 과제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획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인천 지역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R&D 과제들이 발굴되었으며, 향후 지역 내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은 연구회 운영에 참여한 연구자들과 함께 향후 과제 발굴 및 기획보고서의 추가 보완을 통해 실제 사업으로 반영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연구회 기획 및 자문회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함께 탄소중립연구회 기획과제에 대한 기획 및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과제의 방향 설정 및 과제 R&D 검토를 통해 신규 국책과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의 농축산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과제 도출 및 각 기관의 연계 협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이번 기획과제 자문회의를 통해 전북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모빌리티, 스마트팜 분과) 운영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혁신주체를 중심으로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남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과학기술혁신계획 등 충남도 중점과학기술분야로 선정된 ▲모빌리티, ▲스마트팜 분야를 중심으로,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회를 통해 충남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올해 연말 총 2건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본 이슈페이퍼는 충남도 모빌리티 및 스마트팜 산업 육성 정책 현안 대응 및 산·학·연 간 신규사업 발굴협력 제언의 기회로 활용될 예정이다.



3. R&D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경남테크노파크,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경남연구개발지원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 이하 경남TP)는 29일 경남 진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지자체 및 우주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와 경남TP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된 ‘경남 우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주)레이어와이즈, (주)신승정밀, 메이사(주), 파트너스랩(주), (주)지티엘, (주)엔스퀘어, (주)지브이엔지니어링, (주)캠프, 에버인더스, (주)키프코우주항공 등 도내 10개 우주기업을 선정해 시제품제작, R&D기획, 스타트업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하는 등 4억 1천만원 규모, 12건의 기업지원을 수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 김해동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듣고 사업 수혜기업 성과를 관련 지자체 및 기업에 공유하며 전문위원들의 자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차년도 계획에 환류했다.

먼저 경상국립대 김해동 교수의 우주환경(우주쓰레기) 변화에 따른 혁신 우주산업 특별강연 후 ▲인공위성용 50N급 추력기 시제품 제작 ▲한국형발사체 극저온 단열제 가공공정 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소형 위성용 고성능 배터리 셀 제작 ▲우주발사체 Injector Head Assembly 시제품 제작 ▲금속3D 프린팅을 활용한 터보샤프트 엔진용 터빈 노즐 베인 시제품 개발 ▲위성 추적 안테나를 위한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 ▲‘위성영상 검색/활용 플랫폼’의 MVP 모델 확보 ▲우주잔해물 감시레이다용 위상배열안테나(혼 안테나) 시제품 제작 등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주)키프코우주항공은 본 사업을 통해 개발한 시제품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물체 지구 추락 위험 대응 G 저궤도 위성 보호를 위해 우주잔해물 감시레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예정이며, (주)신승정밀은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의 위성 추력기* 8세트를 납품할 예정이다.

경남TP 옥주선 우주항공본부장은 “글로벌 우주항공 수도 경남 실현을 위해 유망 우주 스타트업 발굴과 타 지역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저변을 확대시켜 국가 우주산업 성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과 경남TP는 2025년부터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도내 우주기업과 기업 이전 의사가 있는 전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증지원, 스타트업 육성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타 지역 및 글로벌 우주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https://www.betanews.net/article/1474067>

2024 유연인쇄전자 유망기술 성과공유회 개최 결과보고

경북연구개발지원단



경북연구개발지원단은 지난 10월 16일(수)~18(금) 유연인쇄전자 핵심 기술인 소자, 소재, 장비 등 관련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024 한국유연인쇄전자학회(KFPE)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학·연·산 전문가들의 기술 발표 및 토론 자리를 통해 지역의 성과 공유·확산을 유도하고 유연인쇄전자를 중심으로 융합학술·기술의 정보교환 및 학술 활동 논의, 연구과제 수행 주체 간의 연구성과 공유·확산·활용 논의 등 전국 유연인쇄전자 관련 학·연·산 전문가들 및 유연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전체 참여연구진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북연지단은 성과공유회를 통해 유연인쇄전자 관련 학문을 발전시키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교류의 장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광주테크노파크 성과확산대회 개최

광주연구개발지원단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10월 30일~31일 양일간 광주 과학기술동에서 ‘광주테크노파크 2024 성과확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개원 25주년을 맞이하여 관련부처를 비롯하여 지자체 및 기업, 대학,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비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통합기관(광주TP-광주과학기술진흥원)출범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알리고 광주 과학·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첫날 오전 개막식에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을 포함한 지자체 관계자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전 장관이 광주 AI와 반도체산업의 미래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하였다.

이어 진행된 2일차 행사에서는 기업별 전시제품 홍보와 지역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미래방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100여명 이상의 기업인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모으며 마무리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혁신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지역민과 광주TP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시비가 투입된 사업을 대상으로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를 진행하였다. 성과평가는 대구시비가 투입된 R&D 및 비R&D 사업의 성과 조사·분석 Data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성과점수를 산출하여 상·하위 사업에 대한 우수 및 부진사유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며, 부진사업의 경우 향후 성과제고 방안 등을 별도 제출받아 대구시 소관과 등에 통보하여 사업의 성과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입 효율성 향상, 성과제고, 지역 연구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에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우수사업 중 성과가 뛰어나거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높은 사업의 선정 및 포상과 우수사례집을 별도 제작·배포하는 등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교육 개최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2024년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의 연구조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모집 인원을 약 50명을 예상했으나, 66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이경태 수석연구원이 맡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을 소개했다. 특히, 연구소를 설립 초기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사업과 사업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알려 주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석자는 "사업 계획서 작성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실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두 번째 강연은 신진특허법률사무소의 신진현 변리사가 지식재산권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개념과 권리 해석 방법을 다룬 이 강의는 기업들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줘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점 4.8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 전반적으로 교육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지역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추진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기업 신사업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추진한다.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총 19개의 지역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개 기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분석하고 최신 기술·시장 동향을 제공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들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종합 조사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시장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맞춤형 조사·분석 보고서 제공과 특허 기술 활용 관련 전문가 자문은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경영 측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2023년에는 66.68억원의 사업화 매출과 20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기록했다.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업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년 대전 전략산업 포럼개최

대전연구개발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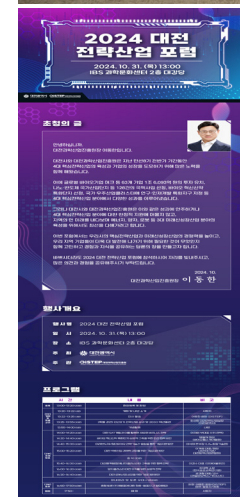


대전시 전략산업의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해 '2024 대전 전략산업 포럼'을 개최하였음 이번 포럼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산업 간 융합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함

행사에서는 1부 '민선 8기 전략산업 성과 및 2030 액션플랜'에 대해 한선희 대전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의 특별강연이 진행 2부에서는 4대 전략산업(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과 3대 미래 신성장산업(에너지, 양자, 로봇)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7명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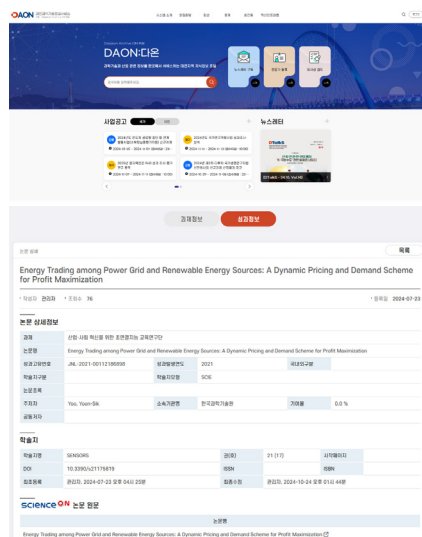
대전시를 비롯해 시 출연기관, 출연연, 대학, 지역기업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함

보도자료 <https://www.e-fas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77>
<https://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351432>



DAON(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ScirenceON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대전연구개발지원단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하 DAON)와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의 ScienceOn이 과학기술 지식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이용하고자 하는 논문 및 특허 정보를 DAON에서 검색하면 이동되는 ScienceOn에서 원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연계 서비스 오픈으로 DAON은 ScienceOn의 논문원문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확장 및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DAON의 사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대전의 과학기술 정보의 확산 및 대중화에 힘쓸 예정이다.

DAON과 ScienceOn의 연계 서비스는 11월 6일에 공식 오픈하고 과학기술정보 검색과 활용을 위해 정기적인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콘텐츠 품질관리에 협력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DAON은 대전광역시 국가R&D사업/과제/성과관리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및 산업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대전지역 지식정보 포털이다. 사용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기획 아이디어 발굴, 정보·동향 분석, 사업·성과관리, 전문가 활용 등을 한눈에 파악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daon.distep.re.kr/info/article>

2024 부울경 과학기술 리더스 포럼 개최

부산연구개발지원단



부산연구개발지원단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부산 울산지역연합회는 9월 24일(화) 부산 그랜드조선호텔에서 ‘2024 부울경 과학기술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실현에 대한 과학계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부울경 과학기술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지역혁신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과학기술 혁신 동향을 파악하고 동남권 산업생태계의 혁신 및 상생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부울경 과학기술 리더스 포럼과 함께하고 있다.

2024년 리더스 포럼은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기조강연을 하였으며, ‘국가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이용태 한국과총 경남지역연합회 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

리더스 포럼에서는 무탄소 에너지 중심 전력 시스템 구축, 무탄소 에너지 확대, 재생에너지 확장, 원전 비중 확대, 전력시장 제도 개편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부산의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포럼 대표인 이준현 과총 부회장은 “과학기술인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 동반 성장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v.daum.net/v/20240927085108321>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1361>

2024년 수도권 연지단 글로벌 프로그램 연수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전년도에 이어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연구개발지원단의 공동 이수인 바이오 분야의 광역 연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연지단 글로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난 8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실리콘밸리에 방문 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한-미 컨퍼런스(US-Korea Conference) 참석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연구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유수 대학, KOTRA 등 기관을 방문하여 미국 산·학 협력 성공 사례와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글로벌 진출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얻은 정보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의 광역 연계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혁신적·효율적인 R&D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경기, 인천 연구개발지원단과 함께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테크노파크, ‘세종과학집현전’ 과학축전 개최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세종테크노파크가 미래기술(드론) 과학문화체험 프로그램인 ‘2024 세종과학집현전’을 9일부터 12일까지 세종 중앙공원 일원(호수공원 제1주차장 인근)에서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후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최, (재)세종테크노파크(세종과학문화거점센터)가 주관하며, 케이(K)-드론협회, 사단법인 한국드론레이싱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세종시가 협력하여 다채로운 시민 참여 행사로 운영 될 예정이다.

2024 세종과학집현전은 ‘한글, 과학, 음악’을 주제로 세종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2024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과학기술(드론)과 소통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경연대회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가 미래성장 신산업으로 육성 중인 드론 중심의 과학체험행사와 전국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한 과학축제가 예상된다.

세종테크노파크 양현봉 원장은“2024년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시의 과학문화거점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세종시를 과학과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참여형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사이트 <https://dj.breaknews.com/242328>

보 도 자 료 세종시 - 보도자료

* 2024 세종과학집현전 포스터
(출처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https://dj.breaknews.com/>))

울산TP, 원전해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원전해체 세미나 개최

울산연구개발지원단



울산지역의 원전해체산업 발전과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테크노파크(이하 울산TP)는 (사)한국원전환경복원산업협회(회장 김수홍)와 함께 28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해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울산지역의 원전해체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돼 지역 기업의 역량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원전해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고받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울산TP, (재)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주)노바테크에서 국내 원전해체 생태계 지원사업과 해체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고, 후반부에서는 (사)대한전기협회, (주)수산이엔에스에서 원전해체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원자력 품질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황을 공유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viva100.com/article/20241029501044>

전남테크노파크, 中企 연구조직 협의회 구성...연구조직 활성화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는 전남지역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들과 함께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협의회 Kick-Off’ 회의를 지난 5일 개최했다.

10일 전남TP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남소재 연구조직은 1천29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7만6천649개소의 1.7%에 해당한다.000

전남TP는 연구조직 활성화를 위한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협의회는 기업부설연구소 14개소, 연구개발전담부서 8개소 총 22개 연구조직이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했다.

‘전남 중소기업 연구조직 협의회 Kick-Off’ 회의에서는 전남TP에서 추진중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강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중소기업 연구조직을 중심으로 협의회 안내 및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의 논의 주제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기업 협력 R&D 기획 등이었다.

전남TP 오익현 원장은 “지역 내 연구조직 네트워킹을 활성화해 기관과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꾸준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전남의 연구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namdone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226>

전남테크노파크-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정보 활용·협력 업무협약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전남테크노파크(오익현 원장)는 한국특허기술진흥원(김명섭 원장)과 전남 기업의 특허 기술 지원과 컨설팅,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특허 기술과 정보를 효율적 활용 및 협력 등 양 기관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과 김명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원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남산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관련된 △특허 조사·분석 서비스 제공 △각종 특허 정보와 DB 제공 △특허분야 활성화를 위한 상호 인적 교류 등 특허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지역 기업들의 특허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과 대응, 해외 특허 기술 동향과 조사 등 다양한 양질의 특허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국특허기술진흥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0062348068961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탄소배출권 연계 기후테크 세미나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완주 비즈마루에서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한 ‘2024년 탄소배출권 연계 기후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동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탄소저감 기술과 탄소배출권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품질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주)포이엔에서 참석해 탄소시장의 이해와 파리협정과 기후기술, 탄소배출권 사업화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탄소저감 기술과 탄소배출권 연계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의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북지역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4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 개최 (주제: 제주 김 육상양식 산업의 육성 가능성)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난 9월, ‘제주 김 육상양식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주제로 제24회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주제발표,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발제는 ▲제주도의 김 육상양식 가능성과 효과, ▲해조류 외해양식의 현황과 과제, ▲김 육상양식 기술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육상 광어 양식장 활용 표준연구, 염지하수 및 고수온에 강한 품종 생산, 디지털 육종의 도입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고, 궁극적으로 제주가 김 육상양식의 잠재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포럼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제주에서의 김 육상양식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제주연구개발지원단은 제안된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주의 바이오 신산업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정책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보도자료 <http://pdf.jejumail.net/20240905/2024090506.pdf>
(제주매일: 용암해수 활용 김 육상양식산업 새돌파구)
<https://www.news1.kr/local/jeju/5530160>
(뉴스1: 미네랄 풍부한 용암해수, 제주 김 양식 산업에 활용해야)

제27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부제: '25년 국가 예타 및 비예타 사업 확보 방안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남도는 10월 15일, 충청남도 주관,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주최로 '25년 국가 예타 및 비예타 사업 확보 방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남연구원 시·군정책협력단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주시 강관식 부시장, 충남연구원 백운성 연구기획단장,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혁 부연구위원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혁 부연구위원은 “국가 사업 확보 방안”을 주제로, △재정의 구조, △예산과정, △총사업비 관리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R&D, 비R&D) 등을 상세하게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충남연구원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은 “내년도 정부의 주요 R&D 예산은 약 25조원으로 ‘혁신·전략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 및 집중 투자’를 기본방향으로 삼았다”라며 “공주시는 국가에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점분야(AI, 양자, 이차전지 등)에도 관심을 갖고 충남도 및 공주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도내의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live/hLbBdyU0qE>
보도자료 http://www.glnews.kr/news_view.jsp?ncd=8866

제26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부제) 충남도 스마트 농기자재·시설 산업 동향 및 전망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청남도 스마트팜 R&D 및 산업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청남도과 충남연구원은 8월 28일,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제26회 충남과학기술혁신 포럼(씨앗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남도 스마트 농기자재·시설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스마트농업 관련 민·간·산·학의 전문가 40여명이 모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경철 농업연구사는 농작물의 생식 성장 인식 및 판단을 도와주는 모니터링 로봇 등 스마트팜 로봇 연구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남규철 스마트농업진흥팀장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구매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보급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충남형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이라는 신규 R&D 사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충남도는 전국 경작지 면적 3위, 수도권 제외 전국 시설 작물 재배 면적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팜 시설 산업 육성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도내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모듈화 △설치·운영비 산정 △스마트팜 생육·운영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합 지원·관리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스마트팜 다여기있슈(가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의 진행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천근녕 연구원, (주)그린플러스 정순목 팀장, 충청남도 김운석 미래산업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충남도 스마트 농기자재·시설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과학 기술적 해법을 논의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삼아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 농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남도의 특색을 살린 스마트 농기자재·시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OhgovpAPBro>
보도자료 <https://www.daej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2474>

충북과기원, 글로벌 AI 기술협력으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

-충북과기원-청주대-BIAIZE-(주)마스 충북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은 충북 디지털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청주대, BIAIZE, (주)마스와 업무협약(MOU)을 추진했다.

BIAIZE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저전력, 저지연 AI 엣지(Edge) 컴퓨팅 부문의 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블레이즈는 충북 도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주)마스와 AI-클라우드 분야의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북과기원과 청주대는 지역 내 디지털 기업들의 AI 역량강화 지원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 인재 양성 촉진의 기반이 되어 충북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https://www.cbiz.kr/news/articleView.html?idxno=27922> (충청비즈)

충북 디지털 미래산업 육성 국제협력체계 공고화

-충북과학기술혁신원-핀란드 디지털 혁신「국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은 충북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9월 4일(목)부터 9월 5일(금) 이틀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5월 핀란드 에스포시와 선진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양자 등 딥테크 과학기술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컨퍼런스에는 핀란드 에스포시 산하 혁신기관 엔터 에스포(Enter Espoo)를 필두로 Business Finland, NOKIA, Aalto Univ., Visual Components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충북에서는 충청북도 과학기술정책과 및 과기원을 포함하여 디지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양 지역의 기술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과기원은 엔터 에스포 방문 시 이루어졌던 혁신기관* 벤치마킹에 화답하고자 충북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반도체)와 이투텍(이차전지)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사례나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CSC(핀란드 국영 과학IT센터), VTT(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 Aalto Start-up Center, NOKIA, IQM, BlueFors

과기원 고근석 원장은 “창의와 혁신이 중요시되는 융합시대에 국제협력을 통해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올해 핀란드 에스포시와의 국제협력을 계기로, 앞으로 선진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충북이 디지털 미래산업의 중심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https://www.okcb.net/sub_read.html?u_ip=112.72.183.5&uid=108142 (충북넷)

4. 보고서 발간소식 및 네트워킹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경기도 산업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Policy Focus 3건과 GBSA Review 1건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들은 경기도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현황과 미래 전망을 제시하며, 지역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담고 있다.

발간된 Policy Focus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에서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기술 수준, 인력 현황, 정책수요 등을 파악했으며,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와 지원 방향을 제언하였다.

“미국 대선 영향, 우리 산업이 나아갈 길은”은 미국 대선 결과가 경기도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여 우리 산업이 나아갈 미래 전략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생물보안법: 한국 바이오산업의 기회와 도전”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강화된 생물보안법이 한국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한국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특히, 미국 시장 내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GBSA Review에서는 “차세대 AI반도체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주제로 다룬다. 이 보고서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이슈와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이러한 보고서들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industrial_trend.do

GBSA Daily Report, 월간 헤드라인 발간

경기연구개발지원단



한 달에 한 번 트렌드를 읽다

GBSA 월간 헤드라인

본 페이지는 각 지방 및 중앙 뉴스와 관련 기사를 기반으로 주요 뉴스를 선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공지능

[英 규제가 주 'AI 경쟁력' 키워드... "추진론 서간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제재가 외려 중국의 '자생력'을 키워 미국이 서

연구에서 추월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최근 GBSA 데일리 리포트와 월간 헤드라인을 발행했다. GBSA 데일리 리포트는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9개 분야—과학기술, 제조 혁신, 지역 경제, 벤처 스타트업, 반도체, 인공지능·데이터,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의 주요 뉴스를 매일 제공한다. 이 리포트는 경기도 발전의 핵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지역 및 산업의 최신 동향과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월간 헤드라인은 한 달 동안 GBSA 데일리 리포트에서 다룬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선별하여 재구성한 후, 매월 한 번씩 제공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경제와 산업 전반의 핵심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들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구독이 가능하며, 매일 주요 뉴스를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발간된 자료들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참고사이트 https://www.gbsa.or.kr/board/daily_trend.do
http://pf.kakao.com/_xcxexdYxj/friend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첨단모빌리티 분야」 발간 및 배포 예정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최신 시장 동향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 제공 확산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에 게시하였다.

게시된 보고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첨단모빌리티 등 4개 분야의 17개 세부 중점기술로, 최신 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정리,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통계자료, 기술·시장 정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보고서는 독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 권의 책자로 발간하여 12월 중 서울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 NTIS 등을 통해 선착순 100여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은 내년에도 이번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로봇제조 첨단모빌리티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전략기술의 시장 동향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 및 연구자가 활용할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최신 정보와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고사이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https://www.stis.or.kr/home>)-
 게시판-발간자료

Blending in R&D vol. 14

대구연구개발지원단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현황 온라인 통계집인 Blending in R&D vol.14를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다. Blending in R&D는 엑셀로 만들어진 온라인 통계집으로 지역 연구개발투자·성과, 과학기술 역량, 산업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순위, 연평균 증가율 등의 계산식을 함께 수록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Blending in R&D에서는 총연구개발비, 연구원수, 연구개발인력수, 연구개발조직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제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을 업데이트하여 수록하였다.

온라인 맞춤형 통계집은 지역 R&D 통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엑셀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필요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수행 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과 R&D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사이트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dtis.re.kr) — 정보 — 간행물



04 R&D 성공사례

경기도 대표 R&D 지원사업,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우수사례
경기연구개발지원단

R&D 성공사례

경기도 대표 R&D 지원사업,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우수사례

경기연구개발지원단

◆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배경

- 경기도 지역산업 실정과 지역정책 목표를 반영한 지방정부 주도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 연구, 공정·제품 개발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임
- 경기도는 전국 최고 최대 R&D 인프라 보유하고 있으나, 도내 중소기업은 수도권 배제로 인하여 민간 R&D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R&D 필요를 충족 시키고자 함
- 경기도는 지역 특화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대기업, 출연(연)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차원의 기술개발 지원 시행 중
-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중장기 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경기도는 현장 상황을 고려한 밀착형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R&D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내용

- (사업목적) 경기도 ①지역경제 활성화, ②기술혁신 클러스터 육성, ③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술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도내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음

● (추진경과)



● (사업특징) 주요 특징은 ① 기업 수요 중심 운영, ② 시군 매칭 지원, ③ 기술 컨설팅 제공임

- (기업수요 중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은 산업 분야에 제한 없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며, 단기 사업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둠
- (시군 매칭) 2023년에 도입된 시군매칭 방식을 2024년에도 확대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기반의 기술 혁신을 더욱 촉진함
- (기술 컨설팅)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과제별 최적의 정량 목표를 수립하고 기술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줌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지원개요

1.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2. 지원 규모

지원구분	사업 내용	지원규모	과제 수	과제당 최대지원금
계	-	43.5억 원	35개 내외	-
기업주도 (일반)	기업 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촉진	18억 원	18개 내외	1억 (도비)
기업주도 (시군)	9개 시·군 소재 기업 중심산업분야의 기술개발지원	25.5억 원	17개 내외	1.5억 (도1억, 시0.5억)

※ 연구개발비는 75%까지 지원가능하며, 선정되면 연구개발비의 25%(현금+현물) 이상을 부담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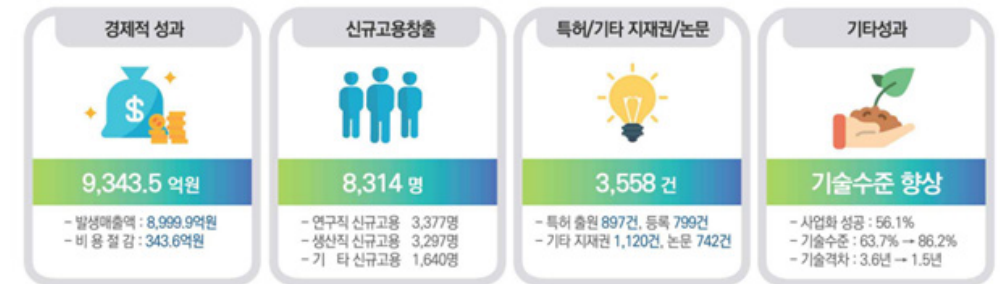
3. 추진 절차

기술개요서 접수	사전검토	1차 서면평가	선행 특허조사	2차 발표평가	협약체결 기술컨설팅	수행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및 과제지원
기술개요서 및 자격요건 서류 접수 (G-PMS)	자격요건 확인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기술성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기업 선별	특허성 유무 조사	계획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종합적평가	적합성 진단 및 컨설팅 시행	심의조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및 과제 지원

◆ 추진 실적 및 성과

-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업 조사 결과, 투입 자원 대비 약 6.9배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되었으며, 지원금 1억 원당 평균 6.1명의 고용과 2.61건의 지적재산권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성과 창출) 발생매출액이 8,999.9억원, 비용절감이 343.6억원으로 총 9,343.5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고, 1억원의 R&D자금을 투입했을 경우, 평균 6억8천500만원의 경제적 성과가 창출됨
- (신규고용 창출) 연구직 신규고용이 3,377명, 생산직 신규고용이 3,297명, 기타 신규고용이 1,640명으로 총 8,314명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졌음
- (연구 성과 창출) 특허 출원 897건, 등록 799건, 기타지재산권 1,120건, 논문 72건, 사업화 성공 56.1%, 기술수준 향상, 기술격차 축소 등의 성과가 창출됨

“지역 기업 성장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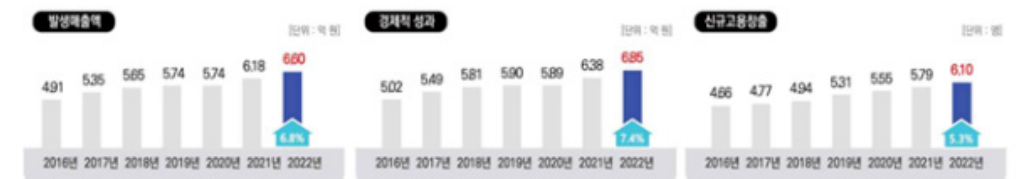


※자료 : 「202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경기도, 2023.12

● 최근 7년간 성과 추이를 살펴본 결과, 도지원금 1억원당 성과는 지속 상승 추세를 보임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은 6.8% 증가, 경제적 성과 (발생매출액+비용절감액)는 7.4% 증가, 신규 고용창출은 5.3% 증가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또한, 동기간 특허 출원/등록 1.0% 증가, 논문 0.7% 감소, 기타 지식재산권 4.7% 감소의 추세를 보였음

최근 7년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 추이(도지원금 1억원 당 성과)





주) 1. 2016년 : 과제대상 463건, 도지원금 929.6억원
 3. 2018년 : 과제대상 559건, 도지원금 1,017.4억원
 5. 2020년 : 과제대상 621건, 도지원금 1,107.0억원
 7. 2022년 : 과제대상 834건, 도지원금 1,363.9억원

2. 2017년 : 과제대상 516건, 도지원금 987.2억원
 4. 2019년 : 과제대상 596건, 도지원금 1,064.7억원
 6. 2021년 : 과제대상 699건, 도지원금 1,201.7억원

※자료 : 「202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경기도, 2023.12

◆ 우수 사례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우수성과

1. 회 사 명 : 바우테크
2. 회사소개 : 바우테크는 트윈스크류익스트루더, 싱글스크류익스트루더, 필름테이크업 등의 정밀 기계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이며,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 개발에 성공
3. 참여내용 : ‘정밀 정량식 피더의 국산화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 및 생산수율과 고용 창출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제에 참여해, 기술개발 성과를 입증함
4. 향후계획 : 기술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수주를 확장하려 노력 중이며, 피더 제어 소재를 확장해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엔 개발품 매출이 1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며, 공장라인을 확장하고 생산력을 확충하는 등 성장계획에 진입했다고 밝힘



※ 자료 : ‘바우테크’ 개발 정밀 정량피더(공급장치)

05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1.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의 R&D 사업 투자 및 성과의 통계를 체계화하여 각 산·학·연 기관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 투자, 성과 등 각 지역의 R&D 분야에서 산출되는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역 연구 개발분야의 지식웨어하우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강원	강원도연구개발사업정보서비스	rnd.gsipa.or.kr
경기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gtis.gbsa.or.kr
경남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gctis.gntp.or.kr
광주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gjtis.gjstec.or.kr
대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re.kr
대전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daon.distep.re.kr
부산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	btis.bistep.re.kr
서울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준비중)
세종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울산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	md.utp.or.kr
인천	인천R&D정보시스템	irds.itp.or.kr
제주	제주지역R&D통합관리시스템	-
전남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jntis.jnsp.re.kr
전북	전북R&D종합정보시스템	rnd.jbtp.or.kr
충남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www.cnstis.net
충북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researchweb.cbist.or.kr

2.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강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20	세종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35
경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554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052.219.0852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445	인천	인천테크노파크	032.260.0618
경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54.479.2217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33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062.609.0411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749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76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063.260.9322
대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042.865.0511	충남	충남연구원	041.540.3807
부산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051.795.5023	충북	충북과학기술혁신원	043.210.0866
서울	서울테크노파크	02.944.6072			

